



1. '거리의 아이' “파송(Fa Xiong)” 이야기

지난 3월 7일, 퇴근시간을 10분 남겨두고 교육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작년에 보낸다 한 거리의 아이를 지금 데리고 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당장 오늘 저녁부터 먹이고 입히고 학교를 다니게 하라는 겁니다.



그렇게 오랜 시간 기다리다 만난 아이는 수줍게 인사하며 들어왔습니다. 부모님은 살아 계시지만 두 분다 마약을 하여 일상 생활이 어려워 거리로 나오게 된 상황이라 했습니다. 그렇게 우리 학교로 오게 된 아이는 이제는 길거리에서 빌어먹고 싶지 않고 공부하고 싶다고 말합니다.

고아와 과부를 외면하지 말라는 말씀이 떠오르며 이 아이가 저희 기숙사에 잘 적응하고, 학교에서 글도 배워 꿈이 생기도록 중보부탁드립니다.



2. 프안밋 봉사활동

프안밋 중고등학교의 4, 5학년(한국 중3, 고1)을 데리고 시내에서 3시간 반 떨어진 나싸왕마을의 학교로 봉사활동을 다녀왔습니다. 우리 프안밋 전교직원과 학생들이 모금하여 그곳 학생들에게 줄 선물을 마련하고, 학교에 필요한 물건들과 축구공 그리고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구제품을 가지고 비포장길로 산 중턱에 있는 학교로 갔습니다. 길이 얼마나 험하던지 학교에 도착해서도 계속 머리가 흔들렸습니다.(혜룡)

학생들은 기다랗게 줄을 서서 저희를 맞이해주었고 교장선생님과 다른 교사분들도 저희를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조를 나누어 함께 준비한 놀이활동도 하고 점심도 함께하고 라오스에 빼놓을 수 없는 축구도 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곳 학생들이 손수 지어 사는 기숙사를 보고 온 학생들이 자기들은 얼마나 좋은 환경에서 지내고 있냐며 감사하고 또 자신들이 가지고 알고 있는 것을 나누는 것이 행복하다는 것도 배운 것 같습니다.

비록 돌아오는 길에 스쿨버스 타이어가 빵꾸가 나서 운전사와 제자가 산 속 길에서 잠을 자는 불상사가 있긴 했지만 앞으로도 저희 프안밋이 이웃을 생각하고 봉사하는 일에 기여할 수 있는 학생들이 될 수 있도록, 이 봉사활동이 꾸준히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3. 새생명탄생!

속도위반으로 작년에 결혼한 아텡이 며칠전에 아빠가 되었습니다. 이쁜 공주가 저희 가족에게 왔습니다. 건강하게 태어나 산모도 회복을 하고 있습니다.



부모가 된다는 것은 너무나도 기쁘지만 책임감도 무겁습니다. 우리 아텡이 아이와 아내를 돌보는 가장으로써 역할을 잘 감당하고 이 가정이 사랑이 넘쳐나고 복의 통로가 되는 가정이 되길 ㄱㄷ 합니다. 아이와 산모가 잘 회복되고 건강하게 자라나도록 중보부탁드립니다.

4. '메도' 인도에서 온 새로운 동역자



드디어 오랫동안 기ㄷ하며 기다리던 동역자가 우돔싸이에 도착했습니다. 어린 아이와 부인을 인도에 두고 먼저 오게 되었습니다. 먼저 와서 정착을 하고 온 가족이 미션필드에서 살아가는 것이 꿈이라고 합니다. 이곳에서 저희와 지내면서 좋은 동역자로, 선생님이로, 프안밋의 가족으로 한마음으로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새로운 곳에 와서 건강하게 지내며, 언어가 빨리 늘 수 있도록, 맡겨진 사역을 잘 감당하도록 그리고 두고 온 가족들도 잘 지내도록 ㄱㄷ부탁드립니다.

5. 아산병원 의료팀

2월 달에 서울아산병원에서 대단위 의료팀이 와서 우돔싸이 도립병원에서 의료봉사를 하고 돌아갔습니다. 3일동안 약 2500명이 넘는 환자를 진료하였고 수술도 진행하였습니다. 우돔싸이 산 속에 있는 마을에도 소문이 나서 마지막 날은 쉼없이 1000명을 보았습니다.



아침부터 와서 기다리고 있는 환자들



백내장 수술 20건
안과 시술, 레이저 27건



외과 수술 20건

라오스 의사들은 공무원이라 환자에게 관심도 없고 생명의 존귀함을 별로 생각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국의료진들이 자기를 돌보지 않고 식사도 번갈아 하며 환자를 돌보는 모습을 보며 깊은 깨달음이 있었기를 소망해 봅니다.

무엇보다 실력이 별로 없고 영어를 못합니다. 그래서 저희 프안밋 고등학생들이 한국 의사분과 환자들 사이에서 통역을 맡게 되었습니다. 우리 학생들이 없었다면 의료사역을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후아두



후아두는 우리 프안밋학교 입학시험에 꼴찌를 했던 아이인데 기교교인이
라 장학금을 주어 첫 입학생이 되었고 어느새 고등학생이 되었습니다.

성품이 너무나 좋을 뿐 아니라 공부도 성실히 하여 우뚝싸이도 전체에서
1등을 하는 우수학생이 되었습니다. 후아두는 앞으로 이비인후과 의사가
되고 싶어해서 이비인후과 통역을 맡게 하였습니다.

후아두 어머니가 목이 아파서 진료를 왔고 정밀검사를 해본 결과 ‘암’이었
습니다. 암이 어떤 병 인지도 모르고 어머니께 통역을 하고 나서 나중에야
암이 어떤 병인지를 알고서는 밖에 나가 울더라구요.....

한국의료팀이 아니었으면 무슨 병인지도 모르고 고통스러워 했을텐데
초기에 발견된 것이 얼마나 감사하냐고 ㅎㄷ님께 감사하고 치료를 위해
ㄱㄷ하자고 위로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아산병원에서 초청하기로하여 수술을 받게 되었습니다.
할ㄹㄹ야~~~ 생명을 사랑하시는 주님께 감사드리고 또 아산병원과 초
청기관인 유어프렌즈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수술이 필요한 환자 4명을 초청해 주시기로 하였는데 일단 후아두 어
머니 (갑상선암)와 심장병환자는 4월 6일 한국으로 출발합니다. 아슬
아슬하게 여권이 만들어지고 비자신청하여 내일 나온다고 하는데 모든
일이 순조롭게 진행되기를, 수술도 잘 받고 회복하기를, 한국음식만 먹
어야 하는데 잘 적응하기를 ㄱㄷ부탁드립니다.

환자 2명과 보호자 2명을 인솔하고 통역으로 섬길 때 저의 건강을 위해
서도 함께 ㄱㄷ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PS: 어머니 간호를 위해 후아두가 같이 동행하여 한국에 가기로 하였습니다.
학교를 좀 빼먹어야 하지만, 제가 교장이라 괜찮습니다.ㅋㅋ

6. 프안밋학교 구단주로 모십니다!!!

라오스 국민 스포츠는 뭐니 뭐니 해도 “축구” 입니다. 어른 아이 여자 남자 다들 축구를 하고 놀입니다. 라오스는 우기동안 비가 많이 내려서 운동장이 진흙탕이 되어 축구를 못합니다.ππ 우리 학생들과 교사들 모두 축구장이 갖고 싶다 하여 시작한 축구장 만들기는 생각보다 여간 어려운 게 아닙니다. 우뚝싸이에 인조 축구장 만드는 업체가 없어서 비전문가인 우리가 스스로 준비작업을 하다 보니 너무 어려움이 많습니다. 2년 전부터 흙을 쌓아 다지고 평탄화를 해두었는데 이번 우기 전에 못하면 우기에 또 땅이 파이고 망가지게 될 것입니다.ππ 축구장만들기에 동참해 주셔서 앞으로 만들어질 프안밋 축구단의 구단주들이 되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ㅎㅎ

